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전북자치도, 경제·산업·농업·문화·복지 등 7개 분야 126건 제도·시책 발표… 도시군 민원실 비치·홈페이지 게시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26건의 제도·시책이 달라진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26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을 육성하여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근무환경 개선금, 최대 1,500만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그리고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이 포함된다.

또한, 탄핵·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농촌 체류형 워터가 새롭게 시행되어 농지에 간단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농촌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도내 10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농가에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여(50만 원/두) 농가 경영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도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규모가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기존 중위소득 75~85% 구간의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공공산

후조리원이 남원시에 개소되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이 해소된다.

환경·산림 분야의 경우 환경보전이 용권이 신설되어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 10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와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어 지역 산림복지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이 기존 2,000만 원에서 확대되어,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 청년은 3,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한, 전세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0만원의 대출 이자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도민생활 분야와 관련, 인구 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가 도입되어,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도·시책 발표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각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하여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윤석열 체포, 법적 정의 위한 당연한 수순”

尹 체포 수색영장 발부에 따른 성명서 발표… “내란 계엄 수괴로 현행법 명백”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한 내란 계엄이 국가 사법 시스템 안에서 단죄될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수색영장 발부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란범 수괴 윤석열이 명백한 현행범이므로 소환에 불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체포 수색영장 발부는 사법의 수순을 여는 당연한 순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지 민주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 계엄 규명과 단죄의 시작,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윤석열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불법 내란 계엄의 수괴로 명백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러나 ‘내란범’ 윤석열은

자신의 역사적 과오와 법적인 책임 앞에서 초지일관 국민을 기만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소요가 완전히 진압된 것은 아님을 경고하며 엄중한 현실을 주시해왔다.”고 하며,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늘날 법원의 영장 발부는 불법무효”라며 아직도 내란 계엄을 선포하던 때와 같은 무도한 언동을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의 오명도 불사하고 내란 수괴 엄호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일당의 저열한 역

사의식과 법치를 강조하며 정작 자신들은 법률 위에 군림하는 저급한 준법정신을 이제껏 목도했다.”며, “윤석열은 끝내 내란 계엄으로 폭주했지만,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를 에워싼 국민의 투쟁으로 광기 어린 질주를 ‘일단’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사법의 시간이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사법의 시간을 여는 당연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법률의 궁극적 목표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적 정의’를 다시 환기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계엄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단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12·3 내란 계엄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29일 발생한 항공기 참사로 많은 국민이 슬픔에 잠겼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은 공조본이 지난 30일 청구해 법원이 31일 발부했으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져부를 신청한다고 하는 등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법적 절차가 아니어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교육청, 아동도서 1만여권 지역아동센터 등 기부

학생교육문화관서 아동도서 선별… 2024년 두 번째 책나눔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1일 5층 점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두 번째 특별한 책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31일 5층 점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두 번째 특별한 책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군산·익산 학생교육문화관 등에 잠자고 있는 아동도서 1만여권을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부하는 것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동도서를 작은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책읽는 즐거움과 꿈을 키우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이에 따르면 책나눔 대상 시설은 전주지역 작은도서관 11곳, 군산 지역아동센터 46곳, 정읍 지역아동센터

15곳, 완주 지역아동센터 5곳, 임실 지역아동센터 4곳 등 총 81곳이다.

이날 책 나눔 행사에 참석한 이옥희 구암지역아동센터장은 “교육청이 지역에까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책나눔을 해 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증된 책이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배움과 성장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은 학생교육문화회관 및 교육청도서관의 불용도서를 공동관리에 나눔이 필요한 시설에 지속적으로 기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월 보육원, 학력인정시설 등에 1,000여 권의 책을 기증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정부는 농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용하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18만4700원 쌀 수매가 확정에… 농식품부 장관 즉각 사퇴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지난 3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12월 25일, 2024년산 공공 비축미 매입가를 결정하는 통계청의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며, “10월부터 12월까지 10일 간격으로 총 9회에 걸쳐 조사한 수확기 평균 산지 쌀 값은 80kg 당 18만 4,700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인 20만 2,797원에 비해 8.8%나 폭락했으며, 역대 최대로 쌀값이 폭락했던 2022년 18만 7,268원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업생산비를 비롯해 모든 생활물가가 폭등을 감안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매우 참담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며 분개해 했다.

그리고, “후안무치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과 농

업계가 함께 추진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재해 수준, ‘농해 4법’이라는 만연도 서슴치 않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농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쌀 수확기 대책을 내놓고는 ‘오르고 있다’, ‘뛴어 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농민 무시는 식량안보의 기동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은 내란을 일으키고 농업을 망친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자며 전봉준 투쟁단이 되어 트랙터를 끌고 남태평양 고개까지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벼 수매가 보장 약속을 어겨 농심을 मतलब한 농협중앙회도 강하게 규탄한다. 농협의 벼 수매가 7만원 보장 및 전년도 수준의 매입가 보장 약속은 공허한 말이 되고 있다.”며 “700여 개소의 지역농협 및 RPC 기준

데 현재까지 355개소만 벼 수매가를 결정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매입가를 결정한 곳은 146개소에 불과하다.”며, “2024년산 벼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상 손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을 나라으로 떨어뜨리고, 쌀값 보장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무능·무책임 농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농민들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내란 공범이자 장관 자격도 없는 송미령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나서서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위한 보상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쌀값 폭락 사태를 통해 정부의 공허한 약속과 실효성 없는 정책에 농민의 생존과 식량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구조적인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를 무도하게 거부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을 국회 재의결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고 하며, “또한, 논 타작물 재배면적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과 전봉준 활성화 등 쌀소비확대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며, “농민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농해 방지하는 농방정부·농방정책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고 굳은 의지로 말했다.

쌀값은 지난해 보다 더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고금리, 고물가와 함께 농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 짓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가군 520명·나군 779명 등 총 1299명…수시 미충원 166명 이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가군 520명과 나군 779명 등 총 1,29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상계열 96명을 비롯해 공학계열1 262명, 공학계열2 137명, 농업생명과학계열 120명, 사회과학계열 65명, 생활과학계열 31명, 인문계열 90명, 자연과학계열1 53명, 자연과학계열2 46명, 환경생명자원계열 30명 등이다.

또한 의료·보건 분야는 의예과가 75명을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치의예과 14명, 약학과 9명, 수의예과 15명, 간호학과 35명 등이다.

전형방법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가·나군 모두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예체능의 경우 수능, 실기고사 성적이 반영된다. 만학도 전형(농생대 생명자원융합학과) 및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수시모집과 동일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반영된다. 수능성적은 국어 및 수학영역은 표준점수를, 탐구영역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각각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가산점으로 반영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3일까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와 유웨이 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예체능의 경우 16일 실기고사가 이뤄진다. 합격자는 13일 오후 2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아침결식 개선사업 대상 22개교로 확대

전북교육청, 간편식 단가도 33% 인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아침결식 개선사업을 22개 중학교 학생 2,044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5개 중학교 학생 1,375명에게 최대 190일 동안 아침 간편식을 제공했다.

특히 전주용소중, 전주성심여중, 완주 용진중 학생들은 지역자활센터, 농협로컬푸드와의 업무협약으로 당일 아침에 직접 만든 신선한 아침 간편식을 제공받았다.

또한 부안 남주중의 경우 지역 출신 청년 업체가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해 만든 건강한 아침 간편식이 제공됐다.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아침결식 개선사업이 한층 강화된다.

사업 대상이 1,375명에서 2,044명으로 46%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단가도 1인당 4,000원으로 33% 인상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지난 7월 시범사업이 진행된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90%를 넘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선관위 임병철 사무처장 취임



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공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구조개혁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장려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구조개혁을 추진한 118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101) 중에 △국가기

발했다.

신임 임병철 사무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장·정당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하였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2025년 1월 1일자로 6급 이상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제89호 발간

제·개정 조례·건의·결의문·5분 자유발언 등 소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 31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겨울호(제89호)를 발간했다.

겨울호에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제414회 임시회와 제415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무너진 헌정 질서와 국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전북을 견인하는 도의회의 포부를 담았다.

문승우 의장은 “도민이 의회에 부여한 사명을 잊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로운 희망 전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국헌 회복과 지역 발전을 비롯한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과 겨울 분위기를 담았다”면서 “앞으로 도도민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지 구독 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www.jbstatecouncil.jeonbuk.kr) 또는 전화(063-280-3044)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